

직물용어 해설-05

* 보일(Voile)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면, 모, 마,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평직, 사직, 이부직 등의 조직으로 제작한다. 얇고 가벼우며 밀도가 성기고 투과하여 보이는 직물로써 통기성이 우수하고 피부에 청량감을 준다. 경위사에 보일 꼬임을 준 실을 사용한다. 면 보일에는 본보일(ply-yarn voile)과 단사 보일(single-yarn voile) 및 반 보일이 있다. 본 보일은 경위사에 정소면을 한 80's/2~100's/2의 쌍사를 소요한다. 제직사에는 40~44TPI의 역꼬임을 준다. 역꼬임을 주면 강하게 되어 촉감이 딱딱하게 된다. 이것을 가스 모소하여 잔털을 없애서 실의 면을 평활하게 한다. 폭이 넓고 밀도가 백백한 변사로 제작한다. 단사 보일은 경위사에 40~50's 단사를 소요한다. 별도로 꼬임을 주지 않는 것이 많다. 반보일은 경쌍사, 위단사를 사용한다. Fancy voile에는 주자 줄무늬 보일(satin striped, checked voile), 클립 도트 보일(clipped dot voile), 피케 보일(pique voile, 경사 45올마다 한 올씩 빈 바디를 넣어 제작한 것), 매듭사를 짜 넣은 것 등이 있다. 인견 보일에는 평직의 평보일, 사직으로 한 사보일 및 황려의 러보일이 있다. 경위사에 75~120d의 1,000~1,800TPM 정도의 편약연사(보일사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경위사 밀도를 거의 같게 영성하게 제작한다. 경위사에 모두 75d의 세번수를 사용한 것을 체리 보일(Cherry Voile)이라고 한다. 경사 인입은 바디 하나에 한 올이 원칙이지만 한 바디에 2올 인입한 것도 있어 2올 보일이라고 한다. 변화 인견 보일에는 줄무늬 보일(평보일에 무연사를 짜 넣어 줄무늬라던가 격자를 나타낸 것) 줄무늬는 빈 바디를 넣기도 하고 주자 조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섬도를 다르게 한 줄무늬사를 제작하기도 하여 나타낸다. 지사와 다른 색의 것을 사용한다.) 우라기리 보일(평보일에 무연의 그림 경사로써 모양을 넣어 경사 무늬를 절단하여 우라기리를 나타낸 것). 문사 보일(사 보일 바닥에 무늬를 표현한 것)이 있다.

보일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면 보일 : 50's~100's 정도의 가는 실에 강연을 주어 밀도를 적게 하고 경위사 같은 올 수 정도의 밀도로 제작한 후 크레이프 및 실켓 가공을 한다.

· Ply yarn voile(원꼬임) : 경위사 모두 합사를 사용

· Half Voile(반꼬임) : 경사에 강연사 위사에 단사를 사용

· Single yarn voile(단사 꼬임) : 경위사에 단사를 사용한 것

* 견 보일 : 경위사에 모두 1,500~2,000T/M의 연사를 사용

* 모 보일 : 소모사의 세번수사에 강연을 주어 성글게 제작한 직물

* 나일론 보일

* 스트라이프 보일(Stripe voile) : 보일지에 주자 등의 조직의 줄을 넣은 것(바탕 색상과 다른 줄무늬사, 격자 무늬 등을 넣는다)

* 피케 보일(Pique voile) : 평조직으로 경사의 배열에 의하여 경두독직의 피케와 같이 나타나게 한 보일.

Voile의 어원은 프랑스어로써 보알(vwal)이라고 발음된다. 영어의 veil의 의미이다. 용도로는 여성용 내의, 아동복지, 블라우스, 원피스, 스카프, 커튼, 옷깃 장식, 전기 스탠드의 갓 등이다.

* 보클(Boucle)

아스트라하에 비슷한 모직물로 외투, 운동복감으로 사용한다.

* 보터니 우스티드(Botany worsted)

메리노 양모를 사용한 소모직물의 총칭이다.

* 봉소직(Honeycomb)

모, 견,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아크릴, 비닐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요한다. 조직의 명칭임과 더불어 직물의 명칭이다. 직물 면에 벌꿀의 집과 같은 장방형의 요철이 있다. 경사와 위사의 조합의 관계로써 경사 중에 가장 길게 부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높게 이루어지고 위사 쪽도 가장 길게 부출 되어 있는 위사가 가장 높게 형성된다. 그 외의 경사와 위사는 계단상태로 가라앉는다. 표면의 산은 이면에서는 골짜기, 표면의 골짜기는 이면에서는 산이 된다. 표백, 무지염 또는 날염한다.凸부위가 많기 때문에 흡수성과 보온력이 크다. 타월지,

깔개, 침구 깔개, 테이블 깔개, 드레스 드으로 사용한다.

* 부클레(Boucle)

모, 면, 견, 레이온, 리넨, 아세테이트, 아크릴, 비닐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평직, 사문직, 이지직 등으로 제직한다. 부클레사(올가미사 : boucle yarn, loop yarn, curl yarn)로써 제직한 직물로써 직물면에 많은 작은 올가미가 나타나 보인다. 올가미의 밀도는 아스트라칸보다는 약간 성기다. 견, 인견 제품은 올이 성긴 것이 많으나 오버용의 모직 부클레는 상당히 두껍고 올이 치밀하다. 부클레사로써 편성된 메리야스 제품도 역시 부클레라고 부른다. 부클레사에서 올가미가 작고 딱딱한 촉감의 섬도가 가는 종류의 것 및 이것을 제직사로한 직물을 부클렛트(bouclette)라고 부른다.

부클레사는 가는 심사와 조강한 감연의 굵은실로써 꼰다. 가는 심사에는 강한 장력을 주어 서서히 풀어내고 후자의 실은 장력을 느슨하게 하여 빠르게 송출하여 꼬임을 합한다. 그렇게 하면 느슨하게 송출된 굵은 올의 실은 연속적으로 올가미를 만들게 된다. 압사를 더욱 꼬아 만든 것도 있다. Boucle는 프랑스어으로써 줄여서 감은 또는 작은 고리라고 하는 의미이다. 오버, 슈트, 드레스, 운동복 등으로 사용한다.

* 부처(Butcher)

레이온, 면,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도비로써 불규칙한 사자직으로 제직한다. 제직사는 굵은 올로써 약간 거친 바닥이다. 경사와 위사를 다른 실로 사염하기도 하고 매듭이 있는 실이라던가 색이 있는 넵프사를 제직하여 변화 효과를 표현한 것이 많다. 직물 면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산뜻한 촉감을 부여한다. 다운웨어, 아동복, 여름용 일본 옷 등으로 사용한다.

* 브로드(Broad)

바닥조직이 치밀하여 광택이 있고 유연가공을 한 포플린으로 위 두둑이 눈에 띄지 않는 직물로 와이셔츠, 잠옷, 여성복 등으로 사용한다.

* 브로드 클로스(Broadcloth)

견, 비닐론,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을 사용하는데 주로 면사 또는 폴리에스터와

면의 혼방사와 같은 화합섬의 방적사를 사용하여 경사를 조밀하게 위사의 인치당 밀도의 5할 정도라던가 배 정도로 배열하여 이것에 통상 경사보다도 굵은 올이라던가 또는 같은 굵기의 위사를 타입 하여 평직으로 한다. 경사에 80's/2 전후의 쌍사, 위사에 경사와 같은 변수의 쌍사 또는 40's~60's의 단사를 사용한다. 정소면사를 제직사로 사용하는 것이 많다. 제직후 실케트 가공을 실시한다. 바닥이 조밀하고 온아한 광택이 있다. 섬세한 횡무가 있다. 촉감이 부드러운 직물이다. 표백, 무지염 또는 날염한다. 경사에 염색사를 사용하여 세로 줄무늬를 나타낸 것도 많다. 세탁도 편리하다.

브로드 클로스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 미국의 명칭이다. 영국에서는 이 와 같은 직물을 포플린이라고 한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포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브로드 클로스에 비하여 굵은 제직기를 사용하고 밀도도 성긴 것으로써 영국 제품 포플린의 하급품에 상당한다.

용도로는 와이셔츠, 파자마, 네글리제, 드레스, 아동복, 운동복, 홈 드레스, 에프론, 사롱 앞치마 등으로 다양하다.

* 브로케이드(Brocade)

능 바닥 또는 주자 바닥에 여러 가지 무늬를 넣은 문 견직물로서 장식, 커튼, 여성복, 양단 등으로 사용한다.

* 비버 클로스(Beaver, Beaver Cloth, Imitation Cloth)

면, 모, 레이온, 비닐론, 아크릴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사문직, 주자직 등으로 제직하는데 경위사에 모두 메리노 종의 태번수 방모 단사를 사용하여 제직하고 제직 후 축융, 기모, 전모하여 더욱이 모우를 경사 방향으로 프레스 하여 눕힌다. 소위 비버 마무리를 시행한다. 강하게 축융 하기 때문에 바닥은 치밀하다. 기모도 강하게 한다. 모우는 멜턴보다도 길고 부드럽다. 촉감은 유연하고 두꺼운 바닥의 모직물이다. 합섬 혼방 등은 통상 양면 기모한다. 비버 마무리는 프레스 마무리, 도스킨 마무리, 페이스 마무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마무리한 방모 직물의 직물 면은 치밀하고 부드러운 길이가 정돈된 짧은 잔털로써 덮여져 올이 보이지 않는다. 부드러운 광택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한 직물로는 이외에 도스킨, 백스킨

등이 있다. 외관, 촉감이 비벼에 근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비벼 클로스는 강하게 축융한 카르제(kersey, 커어지)직과 유사한 것이다. 표면은 질이 좋은 양모를 기모시켜 전모한 다음 치밀한 양모의 권모로써 매끄러운 촉감으로 한 것이다. 오랫동안 외투지에 이 용어가 사용되어 왔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모조된 비벼 클로스(imitation cloth)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버, 제복, 모자 등에 사용된다.

* 비큐나 슈팅(Vicuna suiting)

비큐나모로 만든 직물로서 경사에 소모사, 위사에 방모사를 사용한 능직으로 멜턴과 같이 가공한 부드러운 모직물로서 여성복, 숄 등으로 사용한다.

* 사(Leno)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리넨 등을 사용하며 사조직으로 제작한 투과해 보이는 얇은 직물이다. 경사를 엮이기 때문에 보통 2매의 종광 외에 엮힘 종광(비틀림 종광)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광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제작 후 정련 염색한다. 인견에서는 경위사에 보일 연사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 많다. 사보일이다. 문사(leno brocade)는 사에 평직의 조직으로써 무늬를 제작한 것이다. 평직에 사조직으로써 무늬를 나타낸 것도 있으며 이 직물은 바닥이 매우 치밀하다. 경사는 두 종류가 조합되어 두 종류의 종광과 두 종류의 경사를 사용하고 바탕 실과 익사로 된 위사를 평직과 같은 형태이지만 경사가 서로 꼬임이 다르게 S, Z 꼬임으로 꼬여 있어 위사의 타입 전에 교차한다. 미국에서는 리노 조직과 고오즈 조직은 같은 조직이라고 하며 사직이라고도 한다. 경사는 두 종류의 조합하여 두 종류의 종광과 두 종류의 경사가 사용되고 바탕 실과 익사(doup yarn)로 되어 있다. 위사는 평직과 같이 타입 되지만 경사가 서로 꼬임이 다르게 왼쪽 꼬임 또는 오른쪽 꼬임으로 꼬여 있어 위사의 타입전에 교차한다. 이 교차하는 실을 익사라고 하고 특수한 종광에 통과시키는데 이것을 익종광이라고 하며 이 종광이 경사의 위치를 좌우로 바꾸는 조작을 한다. 이러한 조직은 강력을 주고 실의 엇갈림을 막는다. 익조직 또는 레노 조직이라고도 부르며 레노 조직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①사직은 1조의 바닥 경사와 익경사를 배치하여 위사 한 올을 위입하여 익경을 옮긴 것이다.

②여직은 위사 3올(또는 5올, 7올 등의 홀수) 사이를 평직 또는 능직으로 한 다음 경사를 옮기는 것인데 평직, 능직, 여직, 변화 조직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사직은 레노 조직이라고 하는데 사조직을 제작하기 위한 종광의 운동과 하익의 조직을 나타내는 종광의 운동은 전혀 다르다. 견으로 제작한 것을 향라라고 한다.

용도는 커튼, 이브닝 드레스, 내의, 아동복, 침대 깔개, 여름 옷 등이다.